

## 협회소식/업계동정

### 제11회 우유글짓기대회 개최 10월 17일까지 응모작품공모

한국유가공협회(회장 金榮鎭)는 전국 국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11회 우유장학금 글짓기대회 작품을 10월 17일까지 공모한다.

농림수산부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글짓기대회의 작품소재는 △나는 우유대장 △고마운 우유 △나의 건강과 우유 △우리집은 우유가족 △기타 우유 및 유제품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등으로 이 중 택일하면 된다. 원고의 길이는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협회는 이번에 접수된 작품은 새싹회에 심사위원, 최우수상 1명에게는 농림수산부장관상장과 장학금 20만원을 수여한다. 또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20명에게는 한국유가공협회장상과 각각 장학금 15만원, 10만원, 5만원씩을, 장려상 50명에게는 한국유가공협회장상장과 부상을 지급한다.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31-1 한국유가공협회(문의전화: 584-3631)

### 모닝벨유업등 회원가입 승인 유가공협, 95 제4차 이사회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 9월 22일 서울팔래스호텔 12층 카네이션룸에서 95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모닝벨유업(대표 박준배)의 회원가입을 승인했다.

또 지난 90년 제2차 이사회에

서 유보됐던 파스퇴르유업의 회원가입 신청건은 파스퇴르유업에 협회의 설립목적과 정관 및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사가 있으면 재가입신청토록 통지, 이를 수락하여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시킨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 남양, 고급드링크 요구르트 불가리스 사과 화이버 출시

남양유업(주)(대표 洪源植)는 최근 드링크 요구르트인 '불가리스 사과 화이버'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신제품인 불가리스 사과 화이버에는 과다한 양분의 흡수를 막아주고 장의 리듬을 조절하며, 음식물이 장속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식이섬유를 첨가, 변비, 설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권장소비자 가격은 1백50ml 1병에 7백원.

칼슘·비타민등 강화한 신제품 해태, 엘리트 고칼슘우유 시판  
해태유업(대표 閔丙憲)은 최근 저지방가공유인 '엘리트 고칼슘우유'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엘리트 고칼슘우유는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칼슘을 대폭 보강하고 비타민 A와 D를 강화한 고급우유로 성장기 어린이, 임산부, 중고생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특히 칼슘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소비자 권장가격은 1백80ml 3백50원, 9백50ml 1천3백원이다.

### 콜레스테롤 저하 요구르트 야쿠르트, 메치니코프 발매

한국 야쿠르트유업(주)(대표 李銀鮮)는 최근 고급 드링크요구르트 '메치니코프'를 개발, 출시했다.

유산균연구로 노벨상을 받았던 러시아의 메치니코프박사의 이름을 딴 이 제품은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을 가진 비피더스균 등 4가지 유산균을 혼합배양하여 콜레스

테를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발효보다 정장기능과 간기능활성화가 탁월한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시정명령 불이행 파스퇴르 공정거래위서 검찰에 고발**

파스퇴르유업(주)이 허위·과장광고를 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파스퇴르유업(주)은 지난 2월 미군납자격 획득사실을 광고하면서 자사제품을 '세계 3대 정상급 고급 우유' 등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 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광고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5월 23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고 ▲미군납업체로 지정된 사실이 마치 세계 정상급 우유로 인정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과장광고를 더 이상 하지 말 것 등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지난 6월 7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후 두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파스퇴르유업(주)과 金相勳, 曹在洙前·現職 대표이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족사관고교 학생모집 요강 파스퇴르에 교육법위반 경고**

강원도교육청은 9월 21일 강원도 횡성에 민족사관고등학교 설립을 추진중인 파스퇴르유업(회장 崔明在)에 대해 현행 교육법에 맞지 않는 장학생 모집요강을 광고했다며 경고처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14, 15일 두차례에 걸쳐 일간지에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장학생모집 요강을 공고하며 인가받지 않은 학교의 학교장 명의를 사용하고 속진교육으로 고교 전과정을 2년안에 마친다고 선전했으며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 학생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것이다.

**종합소식**

**90년이후 소사육 전업화 심화 농가수 크게 줄고 규모는 증가**

지난 90년 이후 국내 소 사육농가는 크게 줄고 있으나 가구마다 소의 사육규모는 커지고 있어 소 사육농가의 전업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전국의 소 사육농가 수가 지난 90년 6월말 69만9천가구에서 올해 6월말 현재 57만5천가구로 5년동

안 17.7%인 12만4천가구나 감소했다.

특히 젖소를 기르는 낙농가는 90년 3만4천가구에서 95년 2만4천가구로 1만가구, 29.4%나 줄었다.

90년 66만5천가구였던 한우 사육농가수는 올해 55만1천가구로 무려 11만4천가구, 17.1%가 감소했다.

소 사육농가가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68가구씩 감소하고 있는 것은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유제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영세한 국내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약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이 기간중에 전국의 소 사육두수는 2백14만6천마리에서 3백5만6천마리로 42.4%나 증가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한우는 소비자들이 고급육을 선호하는데 힘입어 1백64만7천마리에서 2백50만마리로 51.8% 급증했다.

젖소의 경우 수입 유가공품과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고 젖소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적어 49만9천마리에서 55만6천마리로 11.4%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편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한우가 2.47마리에서 4.53마리로, 젖소는 14.6마리에서 22.7마리로 늘어나 국내 축산업의 규모가 농민들이 부업으로 소를 기르는 형태의 영세성에서 벗어나 차츰 전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이 아직도 선진국보다 크게 떨어져 지금같은 추세가 계

속될 경우 2000년에 한우사육농가는 45만가구, 젓소사육농가는 1만9천가구로 지금보다 각각 21.7%, 20.8%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 40.8% 영양섭취 불균형 복지부, '93 국민영양조사결과**

생활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40.8%가 잘못된 식생활로 영양을 지나치게 섭취하거나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93년도 국민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하루 권장 섭취열량은 2천1백kcal인데도 조사 대상자중 31%가 영양부족으로 분류되는 1천5백75kcal(권장섭취열량의 75%) 미만을 섭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조사대상자의 9.8%가 영양과다로 분류되는 2천6백25kcal(권장섭취열량의 1백25%) 이상을 섭취하는 등 전체적으로 40.8%가 영양 불균형 상태의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2천가구 6천8백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 대상자중 4.6%가 하루 세끼 식사중 한끼를 거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년도의 3.3%보다 크게 늘어나 바쁜 도시인들의 생활양태를 반영했다.

특히 총섭취열량중 지방식품의 비중이 18.2%로 나타나 일단 권장치인 20%를 밑돌았으나 대상가구중 33.1%는 20% 이상, 5.2%는 30% 이상을 각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순환기 계통

질환이 우려되고 있다.

하루 평균 1인 식품섭취량은 1천54g으로 이중 식물성 식품은 79.6% 8백39.2g이었고 동물성 식품은 20.4% 2백15.4g으로 조사됐다.

주요 영양소별로 보면 단백질, 철분, 비타민B, 비타민C 등의 섭

취율은 양호한 반면 칼슘과 비타민A는 필요량의 84.0%와 67.7%에 그쳐 유제품과 잔뼈 생선 등 칼슘함유 식품과 녹황색채소, 동물의 간, 알의 노른자, 풋고추 등 비타민 A 함유 식품을 섭취해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권장했다.

연도별 1인당 하루 식품 섭취량

(단위 : g)

		69년	84년	92년	93년
고	기	6.6	29.1	58.1	58.3
생	선	18.2	68.0	85.6	74.8
유	제	2.4	20.1	51.6	58.0
곡	류	558.8	404	337.2	326.6
채	소	271	254	301.6	272.4
과	일	48.1	68.3	124.0	119.7
감	자	76.6	32.5	22.5	19.2
	콩	24.9	59.5	36.6	30.5
기	타	45.6	43.3	80.9	94.5
합	계	1,055	990	1,097	1,054

**식품 의무표기 9개로 축소 복지부, 내년 시행 입법예고**

내년부터 식품제조업체가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15개에서 9개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안을 마련, 입안 예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미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표시기준 시행에 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의무표시사항 가운데 삭제되는 항목은 식품의 보관상 주의사항과

반품교환장소, 품목제조허가번호, 사용기준, 보존기준 등 식품위생과 직접 관련이 적은 6개 항목이다.

제품의 유형·제조일·유통기한·성분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이 큰 사항은 지금과 같이 일정한 부분에 일괄 표시해야 하지만 영업허가번호·제조업소명·소재지 등에 관한 표시는 활자크기를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과 식품공전으로 이원화돼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